

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

- 브리퍼 :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-

< 1. 인사말씀 >

□ 안녕하십니까.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.

< 2.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보도 관련 사실관계 확인 >

□ 어제 한 보도에서,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최대 관문인 부산에서 수행하는 방사능 검사 표본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
○ 수산물 방사능 검사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그 과정을 소상히 국민께 알려주신 점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 하나, 일부 정보가 누락되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.

○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, 먼저 수산물 검사 체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수입 수산물 검사의 중심은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와 6개 지방 식약청이며, 주된 검사 절차는 유통 단체가 아닌 수입 단계에서 이뤄집니다.

- 모든 일본산 수산물에 수입단계에서 생산지 증명서 등 서류 검사를 거쳐, 현장에서의 직접 확인, 실험실에서의 방사능물질 측정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유통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.
- 특히, 서류검사 단계에서, 후쿠시마 포함 8개 현*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며,
* 후쿠시마, 군마, 도치기, 아오모리, 이와테, 미야기, 이바라키, 지바
-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은 수입 시마다 매 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 -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6,548건, 29,223톤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, 그중 부산 식약청으로 수입 신고된 5,612건, 23,271톤도 모두 검사했습니다.
- 방금 설명드린 수입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만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됩니다.
- 이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단계에서는, 일부 지자체가 시민들의 우려를 더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.
- 어제 보도에서 검사 표본이 적다고 지적한 것은 부산시, 즉 지자체 검사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.

- 그런데, 수입이 시작되는 절차에서 이미 식약처가 모든 수입 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,
- 지자체 검사는 유통단계에서 안전성을 더 두텁게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,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사 표본이 적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

□ 이상입니다.

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

- 브리퍼 :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-

< 1. 인사말씀 >

□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.

< 2. 우리 해역·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>

□ 7월 14일 기준,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6건(금년 누적, 5,108건)이었습니다. 전부 적합입니다.

○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가다랑어 9건, 황다랑어 7건, 흰다리새우 3건, 망둑어 2건, 노래미 2건 등이었습니다.

○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4건(금년 누적, 2,826건)입니다. 전부 적합입니다.

□ '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' 운영 결과입니다.

○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위판장 꽃게 1건을 조사한 결과, 적합이었습니다.

-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08건을 선정하였고, 98건을 완료하였으며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- 현재 10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데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, 알려드리겠습니다.
-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.
 - 7월 12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3건(금년 누적, 3,050건)이고,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.

< 3. 개별 설명 사항 >

① 정부의 천일염 비축물량 방출 관련

- 다음으로 정부의 천일염 비축물량 방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지난 6월 29일(목)부터 7월 11일(화)까지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전국 마트 180여 개소와 7개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개소에서 판매하였습니다.

- 1차 방출에 이어 정부는 다음 주 중 400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.
 - 실제 판매 시점은 7.19일(수) 경으로 예상되지만, 날씨에 따라 하루 이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.
 - 정확한 판매 시점과 장소는 1차 방출 때와 같이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 - 1차 400톤, 이번에 준비한 추가 400톤에 이어 추가 공급도 준비하여, 충분한 물량을 꾸준히 공급할 계획입니다.

- 또한, 재차 말씀드리지만, 우리 천일염은 안전합니다.
 - 정부는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7월부터 월 10개소에서 35개소로 본격 확대하고,
 - 민간 전문검사기관과 함께 연내 전체 염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 이상입니다.